

일 주 문



안양교도소 떡국 공양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5월 2일 안양교도소 수계법회에서 2600여 재소자에게 떡국공양을 베풀고 오계를 설했다.



제3차 선운사 초기불교 강좌 고창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법만 스님은 5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3차 선운사 초기불교 열린강좌를 개최한다. (063)561-1475



제11회 천년숲 선재길 걷기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5월 17일 월정사와 상원사 구간에서 제11회 오대산 천년숲 선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제12회 한국선다회 다매전수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5월 2일 제12회 한국선다회 다매전수 대법회 acd 육조 진감 초의선사 108현다례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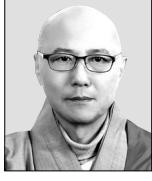
영산전 과거칠불 이운 철아기도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5월 10일 마곡사 영산전에서 과거칠불 이운 철아정진 기도를 진행한다.



어린이날 맞이 도서 전달 부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년 스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 30일 양양군내 17개 초등학교 1,065명에게 도서를 전달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휴대전화활용교육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6월 10일까지 어르신 휴대폰 활용교육을 진행한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대사 태고종 홍보부장 혜철 스님은 4월 29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 입적



대장경 지킴이로 불리며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온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4월 27일 88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적했다. 성안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5월 1일 해인사에서 진행됐다.

1967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성안 스님은 1994년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4월 범어사에서 정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부처님 말씀은 최고의 상담이죠”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위해 1억원 기부한 김인수 교수



소통하는 불교상담가 양성 사회구제 도움주고자 발원 교수 연금 기금으로 내놓아

“부처님은 중생의 상담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가 각광받고 있고 불교상담이 사회적으로 필요되는 일이 많은데 이를 교육하는 불교 대학원은 2곳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 상담가를 양성한다면, 내담자가 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당연히 도움 되지 않을까요?”

지난 4월 30일 자비나눔기금 1억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탁한 부산교대 김인수 명예교수. 그는 15년간 모은 교수 연금을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에 써달라며 선뜻 기금을 쾌척했다. 부산교대에서 정년퇴직 후 서울교대에서 초빙교수로 교편을 잡고 있는 김인수 교수는 현재 불교상담대학 교수다.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자비나눔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있다. 그는 당초 연금을 서울교대에 환원하려는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된 강의실도, 화장실마저 없는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해 마음을 내기로 결심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도 싶었고 국가가 공인하는 졸업장을 몇몇이 든 불교상담 전문가들이 구축구석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상담개발원은 현재 교육

부 인가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2015년까지 기금5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2억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상담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그는 불교상담대학 07학번으로 입학해 총 4년의 동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부처님 말씀이 상담의 좋은 등불이 되리라는 생각에서다. 그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상담해주는 이도 부처님이다. 어려울 때마다 관

세음보살을 떠올린다는 그는 몇 시간이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고 이야기한다.

“부처님 역시 제 말을 그대로 경청해주시죠. 수용과 공감. 이는 상담의 기본원칙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와도 상통하죠.”

김인수 교수는 상담계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이다. 부산교대에 있을 때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심성개발훈련을 진행해 교육부 인가 ‘인성교육실천최우수대학’에 선정돼 3억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가 상담에 할애해 온 시간을 셈하면 벌써 50년. 그러다보니 상담이 가진 자지만 큰 영향력을 누구보다 절감하게 됐다는 그는 상담을 일컬어 ‘인간다움을 살리는 길, 영혼을 일으켜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어떤 악인이라도 상담을 통해 선한 본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부처님이 누구나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여래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앞으로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후배들에게 바라는것은 한 가지다. 상담의 무게를 가벼이 말라하는 것. 그는 상담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루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까지도 아우르기에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리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달라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불자들 추모 뜻 표현하고자 제작”

노란 연등 아이콘 만든 지용 구윤호 법사



지용 스님

“인터넷 상에서 노란 리본 그림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들이 리본 대신 연등을 달면 어떻까 싶어 제작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는 노란 연등 그림이 걸렸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불자들이 올린 사진이었다. 이 노란 연등 그림은 조계종 홈페이지를 비롯해 불교계 미디어에도 대거 실렸다. 이 그림을 처음으로 제작한 이가 군법사 스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바로 8사단 월정사 주지 지용 구윤호 법사다.

“불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속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



하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들

나 피해를 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자들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공업 중생이기에 이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구 법사는 인터넷이나 노란 연등 그림을 달며 이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구 법사가 제작한 노란 연등 그림은 봉축행사에서 다각도로 활용됐다. 대불전 지회 행사에서 마스코트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군법당에서는 봉축연등 대신 노란연등과 노란리본을 달기도 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육아용품 대여점 개소

사회복지법인 불국도(이사장 혜충)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육아용품대여점 ‘아마존(아이들의 마음 이 있는 공간)’을 4월 28일 개소했다.

(주)세정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아마존’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육아용품을 비롯한 장난감 200여점을 비치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대여해줌으로써 가정의 경제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육아용품점이 들어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프로젝트 핑크부다 ‘꿈을 싣다展’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부다(Pink Buddha)의 ‘꿈을 싣다展’이 4월 28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내 불교법당에서 진행됐다.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탑(塔)에 꿈을 담은 프로젝트 형 전시로서, 서울대병원의 환우 및 일반인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핑크부다 6명의 작가가 서울대병원의 환우 및 일반인에게 핑크 색 소재에 소원을 직접 적은 ‘드림페이퍼(Dream Paper)’를 받아, 한 점의 탑(塔) 작품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도 함께 달았다.

정혜숙 기자

하남 성불사 ‘만인만발 무차공양’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4월 21일 지역민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만인만발 무차공양 대법회’와 ‘제13회 성불사 벽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열었다.

이날 무차공양에서는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성불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음식공양을 받았으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학인스님과 대학생 불자와 동국대학교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에게 총 22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자야구단 대학야구 제패



동국대 2014 대학야구 춘계리그 대회에서 건국대를 3 대 1로 누르고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4월 1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경기에서 동국대는 3회와 4회 5회 각각 1점을 얻은 뒤 7회 1점을 만회한 건국대를 따돌리고 2연패의 기쁨을 안았다.

불자인 이견열 감독은 부임 후 건국대회에서 4번의 우승을 일궈내며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날 선발 최동현(체교2) 선수는 7회 1사까지 건국대 타선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망월사

주지 보원

경북 경주시 배동 490 TEL 054)745-7579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

자비원

총무원장 석불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 FAX 051)642-8361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덕사

주지 행복 해륜

신도일동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55번지 2반 TEL 033)432-7345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지 덕성 행성

신도일동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번지 TEL 02)2698-6100